

전통예술 가업계승 대학생이 경험하는 가족의 의미 - Giorgi 현상학적 접근 -

강 수 윤

이 동 훈[†]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예술을 가업으로 계승한 대학생들의 가족 내 경험 및 가족이 갖는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가업을 계승하여 전통예술을 전공하는 대학생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개의 중심의미, 16개의 드러난 주제, 7개의 본질적 주제가 도출되었다. 본질적 주제는 ‘핏줄내림’, ‘예술적 가풍의 자기화’, ‘가족추동력’, ‘전문예술인으로서의 성장 원동력’, ‘감옥살이 아닌 감옥살이’, ‘뛰어넘을 수 없는 벽’, ‘가족의 길에서 나의 길로’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전통예술, 가업계승, 가족, Giorgi 현상학적 연구

[†] 교신저자 : 이동훈, 성균관대학교 외상심리건강연구소, (03063)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mail : dhlawrence05@gmail.com

서론

유네스코에서는 문화유산의 전승을 통한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는 문화유산이 각 민족·국가의 문화정체성을 보호하는 근간이 될 뿐 아니라 인류가 지켜나가야 할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의식에 근거하고 있다(양윤정, 조성기, 우주희, 2009). 세계적으로 문화정체성 확립 및 전통 계승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전통에 대한 발견과 보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전통예술교육¹⁾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발견과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 방침 수립에 착수하였다. 또한 27개의 국립대학교 가운데 5개 대학에 국악학과 또는 한국음악과를 개설하였으며(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0),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전통문화의 맥을 잇는 이수자, 보유자 등의 자격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1) 전통예술은 춤·놀이·연희 등을 포함한 음악 분야와 폭넓은 미술 분야를 뜻해 왔는데, 공교육 내에서의 전통예술교육은 전통에 대한 주제와 내용을 중심으로 음악·미술·체육 교과를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춤·놀이·연희 등을 포함한 전통예술은 ‘전통음악’, ‘전통 연희’, ‘전통 무용’으로 구분(전지영, 2015에서 재인용)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통예술의 범위를 전통음악인 국악과 한국무용으로 한정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공교육 및 무형문화재 정책 등을 통해 제도권 내에서 전통예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업계승 여부가 전통 예술인들의 예술적 실천 및 개인의 삶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악의 가업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제도권 내에 도입된 교육을 접하기 전에 가족 내에서 국악 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이러한 학습 경험은 그들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이사랑, 2009).

가업계승의 사전적 의미는 집안의 전통이나 문화유산, 업적 따위를 물려받아 이어 나가는 것으로(국립국어원, 2016), 가업을 계승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가업을 계승한 개인의 문화, 가치관, 진로 등에 가족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전통예술은 한국인의 생활양식, 사고방식을 포함하는 전통적 가치의 집합체로써(박현승, 허식, 2013), 과거로부터 전해져 오는 문화유산 중 음악, 무용 등의 형상화된 유·무형의 예술행위를 의미한다(정은정, 2015). 따라서 전통예술이 문화자원으로 자리 잡은 가정에서의 성장 경험은 개인에게 전통지향적 사고 및 가치관 형성의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족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 논의되어 왔다(권용혁, 2011; 김완석, 박종원, 2013; 박현미, 장석진, 2013; 이득연, 홍경자, 2004). 가족은 전 생애에 걸쳐 개인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김완석 외, 2013), 가족 구성원의 언어사용, 행동, 신념, 태도, 문제해결방식, 위계, 규칙, 직업 등은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 형성 등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박현미 외, 2013). 부모와

의 관계 속에서 자녀는 자기개념, 자신감, 의사소통 방식 등 삶의 전반적인 규칙들을 배우게 되며,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식은 자녀의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Rosenberg, Schooler, & Schoenbach, 1989; Sanna, 1992).

최근의 진로이론에서는 가족이 진로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Carr, 2012). 가족 내에서 개인이 학습한 역할은 그 자신의 진로발달과 관계된 역할 및 역할기대와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측면에서 가족은 직업 발달의 중요한 맥락적 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Lerner, & Schulenberg, 1986). 또한 가족은 가족 내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한 패턴과 원칙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러한 패턴과 원칙은 개인의 행동은 물론 진로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Bratcher, 1982). 한편 Lopez와 Andrew(1987)는 특정한 가족 상호작용이 효과적인 진로의사결정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문화적 배경에 따라 가족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Richie, Fassinger, Linn, Johnson, Prosser, & Robinson, 1997).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진로 선택 시, 문화변용을 경험한 대학생에 비해 전통지향적 문화를 추구하는 대학생에게 가족의 배경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집단주의적 문화권에서 그 영향력의 수준이 높게 측정되었다(Tang, Fouad, & Smith, 1999).

우리 사회에서 전통예술을 가업으로 계승하는 대학생들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은 전통적이고 집단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자녀의 독립성과 개별성, 자율을 강조하는 서구 문화

권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개인의 이익보다 가족의 이익을 중시하고, 개인의 권리보다 가족의 화목을 우선시하는 유교주의적·집단주의적 가족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권용혁, 2011).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부모-자녀 간 심리적 독립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늦은 나이에 이루어지고, 자녀의 진로계획과 진로결정에 부모 및 가족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곽현, 이은경, 2011; 김수리, 이재창, 2007).

Markus와 Kitayama(1991)는 해당 문화 내에서 구성원이 갖는 자기개념(self)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와 심리적 과정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면서 독립된 존재로서 인간을 바라보는 개인주의 문화에서 개인은 독립적 자기관(independent self)을 발달시키는 반면 집단 내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은 상호협조적 자기관(interdependent self)을 발달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독립적 자기가 자신의 능력, 사고, 감정 등의 내적 속성에 민감하고, 자기표현을 중시하는 반면 상호협조적 자기는 사회적 지위 및 역할관계 등의 외적 속성에 민감하고, 개인의 독특성보다는 집단 내에서의 조화를 추구한다. 즉, 자기인식의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개인이 속한 문화이며, 집단주의 문화에 속한 개인일수록 가족과 같은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한민, 류승아, 김경미, 2012).

이상의 연구들은 가치관, 신념, 성격, 대인관계 형성을 비롯하여 진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가족이 개인의 발달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가족이 개인에게 갖는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 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하며, 특히 전통지향적·집단주의

적 문화 배경을 지닌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배경 및 가정 내 경험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업을 계승하여 전통예술을 전공하는 대학생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성장한 가정환경 및 가족경험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자아정체성 확립과 직업선택, 가족과의 분리에 대한 새로운 적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심리적 압박과 부담을 경험하는 대학생 시기의 발달적 특성(이득연 외, 2004)을 고려할 때, 정체성 확립 및 진로 선택 등 삶에 대한 총체적이고 다각적인 사고를 통해 가족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가족 경험은 독특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통예술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전승실태(이경영, 2014), 미학(손태도, 2012), 전통예술 정책 및 전통예술 교육(전지영, 2015; 정은정, 2015)을 주제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전통예술 진흥 정책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교육 관련 연구들은 교육과정의 변화 및 다양한 교과목 개설에 대한 제안에 그쳐 실제로 전통예술을 전공하고 있는 학습자들의 경험에 관하여 논의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자국문화와 타문화의 혼재가 불가피한 세계화의 움직임 속에서 민족 고유의 정체성 확립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구체적인 전통예술 계승·보존 방법을 비롯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유네스코가 무형유산보호 협약(2003) 제2조 3항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수단으로 ‘공식적·비공식적인 교육을 통한 전달’을 강조한 바와 같이 전통예술은 공식화되고 구조화된 방식에서부터 구조화되

지 않은 도제 방식의 교육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다(양운정 외, 2009). 이는 공교육 내에서의 전통예술 교육과정이나 사회정책은 물론 비공식적이고 비구조화된 전승방법에 대한 관심 또한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국악인 2세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다룬 연구(이사랑, 2009)가 이루어졌긴 했으나 성인 국악인 2세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했다는 점, 이들의 음악적 실천과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주제와는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예술을 가업으로 계승한 대학생들의 가족 내 경험 및 가족이 갖는 의미의 본질을 탐색하되, Giorgi(2009)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그들의 가족 내 경험에 대한 주관적 의미구성과 인식을 총체적이고 구조적으로 진술하여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통예술을 가업으로 계승한 대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상담 현장에서 이들에 대한 가족상담 및 심리상담에 필요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전통예술을 가업으로 계승한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가?’

연구방법

연구참여자

현상학적 연구는 소수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경우에 적합한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통해 탐

색하고자 하는 현상은 큰 표본을 선택하지 않아도 탐구되고 발견될 수 있는 논리와 일관성 있는 경험의 그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 (Hurbeman & Miles, 199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현상에 대해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참여자 선정에 의해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과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병행하였다. 연구자들은 조부모 또는 부모의 대를 이어 전통예술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대학의 국악과, 한국음악과 및 한국무용과에 재학 중인 지인을 통해 연구대상을 추천받아 연구참여 의사를 타진하였으며, 추천대상이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힘으로써 첫 번째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후에는 눈덩이 표집방법을 통해 연구참여자에게 다른 연구참

여자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총 7명을 추천받았고, 이 가운데 공연 및 대회 준비 등을 이유로 연구참여 거부 의사를 밝힌 2명을 제외하고 총 5명의 연구참여자들을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평균연령은 21.8세로, 현재 대학에서 판소리, 민요,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이다. 연구참여자를 포함하여 한 가정 당 최소 2명에서 최대 3명까지 전통예술 분야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거나 전문교육을 받고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한 심층면담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주로 연구참여자가 재학 중인 학교를 방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연번	성별	학년 (연령)	거주 지역	전공	가족 현황		
					전통예술을 하는 가족	가족의 직업	가족의 전공 분야
1	여	대학교 2학년(21)	전북	판소리	외조모	판소리무형문화재	판소리
					어머니	도립국악원교수	판소리
					어머니	대학교수	민요
2	여	대학교 3학년(23)	경기	민요	여동생	고등학생	민요, 장단
					아버지	시립극단 단장	판소리
3	남	대학교 3학년(24)	광주 (전남)	판소리	여동생	고등학생	판소리
					어머니	한국무용학원운영	한국 무용
4	여	대학교 2학년(21)	서울	한국 무용	아버지	국악인 (국악캠프운영)	판소리
					형	국악인 (국악공연가)	판소리

문하거나 자택 근처의 공간에서 실시되었다. 연구자는 면담 시작 전,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면담내용이 녹음될 것이며 익명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밝히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면담을 시작하였다. 면담은 1회기당 60분에서 7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연구참여자에 따라 3회~4회 면담이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로서 하여금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왜곡 없이 표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비지시적인 언어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면담은 연구참여자에게 “대를 이어 판소리(또는 민요, 한국무용)를 전공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연구참여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하여 보다 풍부한 설명을 이끌어내기 위해 후속질문을 실시하면서 융통성 있게 비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하였다. 후속질문은 현재의 전공을 선택하게 된 동기,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 및 성장배경, 앞으로의 꿈이나 진로계획 등이었다. 연구자는 1회 면담 종결시마다 현장에서의 다양한 상호작용 및 면담 분위기 등 특기할만한 사항들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자료 분석 시, 면담 실시 당시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도와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녹음된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되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자료를 구분하였다.

분석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가업을 계승하여 전통예술을 전공하는 대학생의 가족 내 경험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Giorgi(2009)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Giorgi의 현상학적 연

구방법은 인간의 의식 속에 드러난 현상의 본질을 기술하는 접근방법으로, 체계적인 분석 방법과 절차를 따른다는 점에서 과학적 설득력을 지닌다(Giorgi, 2009). 또한 상황적 구조진술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독특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전체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일반적 구조진술로 통합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가족 경험을 어떠한 과정이나 이론으로서가 아닌 경험 그대로 그려내고 그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도출해 내는데 적합한 Giorgi(2009)의 4단계 분석절차를 따랐다.

첫째, ‘전체를 인식하는 단계’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5명의 진술이 필사된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면담을 통해 연구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가능한 모든 선입관을 버리고 개방적인 태도로 자료를 탐독하였으며,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참여자에게 재질문하는 과정을 거쳐 내용을 정교화하였다. 둘째, ‘의미단위로 구분하는 단계’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의미 있는 문장이나 문구를 추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미단위를 구분하였다. 관련 없는 자료들을 배제하고 연구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정확하게 기술된 표현을 찾는 과정을 통해 305개의 의미단위를 확정하였으며, 확정된 의미단위들을 다른 의미단위들 및 전체적인 의미와 연관지으며 그 의미를 규명해 나갔다. 셋째, ‘의미단위를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연구자는 규명된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경험이 갖는 본질에 대하여 그 중심의미(focal meaning)를 연구자의 언어로 기술하였다. 연구자는 반성(reflection)과 상상적 변형(imaginative variation)

과정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일상 표현을 현상에 중점을 둔 이론적·학문적 언어로 바꾸어 기술하였다. 넷째, ‘통합의 단계’에서 연구자는 변형된 의미단위들을 구조의 일관성 있는 진술로 통합하기 위해 우선 각 연구참여자의 개별적·구체적 상황에 따른 상황적 의미구조를 기술하였으며, 전체 사례에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필수 구성요소를 결정한 후 본질적 주제를 중심으로 일반적 의미구조를 기술하였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일반적 의미구조가 적절하고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진술 내용을 반복하여 읽었으며, 의미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미단위 구분부터 새롭게 점검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연구의 엄격성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으로 Lincoln과 Guba(1985)가 제안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4가지 평가기준을 고려하였다. 첫째, 사실적 가치는 연구의 발견이 실재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를 의미한다. 연구자는 수집된 연구 분석 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과 의미 추론이 연구참여자가 심층면담을 통해 응답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면담 내용을 각 연구참여자에게 보여주고 확인하는 연구참여자 검토(Member checks)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의 사실적 가치를 높이려고 하였다. 둘째, 적용성은 연구결과가 연구 상황 이외의 맥락에서도 적용가능한가를 말한다. 이에 연구자는 가업을 계승하여 전통예술을 전공하고 있으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 2인에게 본 연구의 결과가 가업을 계승하여 전통예술을 전공

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세계를 잘 대변해주고 있는지 점검함으로써 연구의 적용가능성을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셋째, 일관성은 연구자가 활용한 방법을 다른 연구자가 그대로 따라했을 때 비슷한 결론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의 일관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질적연구방법론에 대한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의 질적연구 전문가(박사) 1인과 다수의 질적연구 논문을 게재하고, 지속적으로 질적연구 감수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박사과정 1인에게 연구참여자 선정과 심층면담의 방법, 분석방법 등 연구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넷째, 중립성은 연구과정과 결과 도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편견이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연구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자는 ‘판단중지(epoche)’를 활용하여 현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정과 선입해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연구자의 편견이 연구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질적연구는 연구참여자 선정, 자료 수집 및 분석 등 연구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연구자 자신이 가장 기본적이고 신뢰할 만한 연구 도구로 활용되므로 연구자의 훈련 및 준비가 중요하다(김영천, 2006). 연구자는 대학원 박사과정에 개설된 질적연구 과목을 수강하고, 각종 학회에서 주관하는 다수의 질적연구 방법론 워크숍에 참여하였으며, 다른 연구자는 학술지에 다수의 질적 연구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연구자는 면담 시작 전에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심층면담 자료의 활용과 범위, 녹음, 비밀유지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문서화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연구 참

여 동의서에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참여자가 연구에 대한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심리적 변화 또는 상황 변화로 인해 참여하기를 원치 않을 때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면담 내용은 녹음을 할 것이고,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면담 내용은 물론 신상에 관한 어떤 자료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다.

연구결과

가업을 계승하여 전통예술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경험한 가족의 의미와 주제

전통예술 가업계승 대학생이 경험한 가족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305개의 의미단위를 연구자의 언어로 전환하여 구성한 65개의 중심 의미, 16개의 드러난 주제, 7개의 본질적 주제가 도출되었다.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전통예술 가업계승 대학생이 경험한 가족의 의미와 본질적 주제

본질적 주제	드러난 주제	중심의미
예술적 정체성의 대물림	예술향유	- 무대에 서고 싶은 욕구의 근원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끼에서 찾음. - 아무리 훌륭한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의) 제자라 해도 손녀인 자신의 소리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인식함. - 따로 판소리를 배우지 않았음에도 자기도 모르게 판소리를 중얼거림. - 의지와 상관없이 판소리는 태교부터 시작되어 삶 그 자체가 됨.
	가업계승	- 아버지의 제자들은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소리를 자연스럽게 구사함.
속명적 수용	민요	- 민요를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도 있지만 지금까지 자신의 삶과 함께 해온 민요가 아닌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음.
	가업계승	-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이 '특별'하지는 않지만 '특이'한 것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특이함을 장점으로 살리고자 하게 됨. - 아버지의 뒤를 이어 판소리를 하는 것 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절감하고 판소리의 길로 들어서게 됨.
예술적 가풍의 자기화	예술적 역할 모델	- 국악전공 전임교수로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엄마를 본받고자 함. - 큰 대회에서의 수상, 인간문화재 지정 등 공식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엄마와 할머니를 본보기 삼아 자신의 목표를 설정함. - 무대 위 멋진 아버지의 모습에 대한 강한 인상이 판소리에 대한 애정으로 승화됨. - 예술가로서의 강직함과 실력을 두루 겸비한 아버지의 삶에서 빛나는 꿈을 발견함. - 대중이 인정하는 뛰어난 실력을 갖추기까지 형이 걸어온 고된 과정에 대한 이해는 자신의 앞길을 다지는데 초석이 됨. - 예술의 본질을 추구하고 무대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본받고자 함.
	일상 속 자연스러운 채득	- 어린 시절, 엄마가 인솔하는 합숙훈련에 학습자가 아닌 주변인의 신분으로 참여하여 민요를 배움. - 엄마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꾸준히 지켜보며 민요를 듣고 혼자 따라 부르는 과정에서 국악에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됨. - 아버지와 국악인 동료들이 갖는 술자리에서의 연행을 자주 접함.

표 2. 전통예술 가업계승 대학생이 경험한 가족의 의미와 본질적 주제

(계속 1)

본질적 주제	드러난 주제	중심의미
가족 추동력	현실적 고단함의 안식처	- 어린 시절 엄마가 운영하는 무용연습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곳 생활에 익숙해지고 친근해짐. - 판소리 선생님과 함께 지내며 소리 자체보다는 생활 속 예의를 먼저 습득함. - 바쁜 엄마를 따라 대회장, 공연장 등을 쫓아다니며 국악인으로서 알아야 할 예의범절, 무대매너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학습함.
		- 몸을 쓰는 과정에서 입는 부상과 신체적 고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는 엄마가 있어 힘이 됨. - 할머니의 딸로서 엄마가 경험한 아픔을 딸인 자신이 대물림하는데 대한 엄마의 우려와 안타까움이 전해져 옴. - 전통은 변화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에 공감해주고, 변화 방법에 대한 고민에 동참해주는 가족들을 통해 용기를 얻음. - 판소리를 하면서 겪게 되는 내·외적 어려움을 이해해주는 형이 있어 힘들어도 다시 일어 설 수 있음.
	길잡이가 되어 주는 멘토	- 민요 분야에서 학생 입시 지도 경험이 많은 엄마 덕분에 대학 입시를 비교적 수월하게 치러냄. - 예술을 하더라도 인문적 소양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술중학교가 아닌 일반중학교에 진학함. - 타악에서 판소리로 전공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세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형의 조언이 중요하게 작용함. - 어두운 직업 전망에 대한 고민을 경청하고 대안을 제시해주는 엄마의 존재가 든든함.
	가족 자산	- 한국무용을 진로로 결정하는 데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엄마의 영향과 어린 시절의 환경이 크게 작용함. - 국악계 전반에 걸쳐 쌓아놓은 엄마의 인맥은 앞으로 자신의 활동에 귀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함. - 엄마 딸이라는 이유로 또래 친구들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유명한 선생님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 - 고인이 된 아버지의 지인들로부터 진심어린 도움을 받으며, 이것이야말로 아버지가 남겨 주신 귀한 유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됨. - 아버지가 운영하는 국악캠프에 참가하여 아버지의 지인들을 통해 국악의 다양한 장르를 경험함.
전문 예술인 으로의 성장 원동력	커다란 스승 청출 어람의 계기	- 할머니의 소리를 배우는 데만 10년이 넘게 걸림. - 혹독하게 연단하는 할머니가 때로는 야속하게 느껴짐. - 수도선부(물이 불어나면 큰 배가 저절로 떠오른다), 정심정음(바른 마음에서 바른 소리가 나온다)의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김. - 판소리 실력에 대한 아버지의 냉철한 평가는 실력향상을 위한 노력의 기록제로 작용함. - 스승을 뛰어넘는 자신만의 소리 색깔을 가져야 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예술가로서의 삶에 지침으로 삼음.

표 2. 전통예술 가업계승 대학생이 경험한 가족의 의미와 본질적 주제

(계속 2)

본질적 주제	드러난 주제	중심이미
예술적 역량 향상의 토대		- 유명한 선생님을 통해 민요를 가르친 엄마의 열정이 지금의 자신을 있게 했다고 생각함.
		- 얼마나 할머니를 좇아 참석하는 공연 뒤풀이 자리를 통해 다양한 음악을 접하는 과정에서 예술적 시야가 확대됨.
		- 할머니의 가르침 안에서 괄목할만한 실력의 진보를 경험함.
		- 아버지의 권유로 형을 따라 나선 아프리카에서의 유학생활은 음악의 전문을 넓히고 국악에 흥미를 갖는 계기를 마련해 줌.
감옥 살이 아닌 감옥 살이	보이지 않는 구속	- 자신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출강하는 엄마의 존재가 탄로나 구설수에 오를까봐 조마조마함.
		- 판소리 선생님의 자녀로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행동의 제약을 받음.
		- 얼마나 할머니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일은 암묵적으로 금기시됨.
		- 같은 한국무용을 전공한다는 이유로 엄마와 자신을 동일한 인격체로 취급하는 주변의 반응이 불편함.
감옥 살이 아닌 감옥 살이	꼬리표의 굴레	- 한 사람의 잘못이 서로에게 해가 될까봐 가족 모두가 조심스러움.
		- 자신의 부족한 실력이 형의 명성에 먹칠을 하게 될까봐 걱정됨.
		-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사람들의 가혹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힘겹게 느껴짐.
		- 아버지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그늘’이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닫게 됨.
뛰어넘을 수 없는 벽	후광 효과에 대한 반감	- 엄마를 의지하여 안전한 진로를 선택했을 것이라 보는 주위의 시선이 불쾌함.
		- 자신의 실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비리와 할머니의 후광 덕으로 치부해버리는 상황이 씁쓸함.
		- 자신의 힘으로 이룬 성과에 대해서도 아버지의 영향력을 운운하는 사람들의 평가는 껴안고 가야할 과제라 생각함.
		- 아버지의 실력을 뛰어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 두각을 드러내기 힘든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게 됨.
가족의 길에서 나의 길로	의존적 존재감	- 유명한 형과의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과의 만남에 회의를 느낌.
		- 아버지의 지인인 전공 교수님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음.
		- 아버지가 터잡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 새로운 활동 무대에서 자신만의 힘으로 성공하고 싶음.
		- 아버지의 간판에 의존하지 않고 소리로서 승부를 보고자 함.
가족의 길에서 나의 길로	통합된 독자 노선	- 형이라는 보호막 안에서 받는 편애나 배려를 거부하고, 당면한 현실과 당당히 맞서고자 함.
		- 엄마와 할머니의 발자취를 그대로 좇기보다는 전통의 가치를 살린 퓨전음악으로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구축하고자 함.
		- 가족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전통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싶음.
		-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토대로 국악의 대중화·세계화를 도모하고자 함.
가족의 길에서 나의 길로		- 아버지의 소리를 무형문화재에 등재하고, 그 소리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고자함.

상황적 구조 진술

핏줄내림

예술적 정체성의 대물림.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의 예술적 소질과 재능이 조부모 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1은 정식으로 판소리를 배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문화재인 할머니를 꼭 빼닮은 소리로 인정받는 경험을 통해 유전적인 요인이 학벌이나 화려한 스펙보다 더 중요하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연구참여자3은 아버지의 제자들과 차별화된 소리를 능숙하게 구사하였는데, 학습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태생적으로 존재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할머니가 진짜 아끼는 제자가 한명 있어요. S대를 나오고 국립창극단에 들어가 있어요. 할머니는 그 언니가 정말 소리를 똑같이 한다 생각이 드셨대요. 근데 남들이 들었을 때 똑같은 건 저래요. 확실히 피가 있는 사람들은 좀 달라요.(연구참여자1)

숙명적 수용. 연구참여자2는 중학교 시절,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배워 오던 민요를 그만두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기도 했지만 민요를 그만두고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 대한 두려움이 앞섰다. 연구참여자3 또한 어린 시절부터 삶 그 자체였던 판소리 외에 하고 싶은 일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판소리를 전공으로 선택하여 예술고등학교로의 입학 결정을 하게 되었다.

중학교 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가 지금까지 해온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아니면 다른 걸 할 수 없을 거 같은...
(연구참여자2)

예술적 가풍의 자기화

훌륭한 역할모델. 현역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가족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자부심이자 동기부여의 자극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5는 판소리 신동으로 유명한 형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흘린 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3은 대학 출강을 비롯하여 지역 극단에서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편 아버지를 뛰어넘는 전문가로 성장코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형도 진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6살 때 완창했다는 게. 저는 지금도 완창 못하거든요. 5개가 있는데 6살에 홍보가를 완창했거든요. 3시간을 쉬지 않고 다 외워서...말 그대로 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고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정말 형처럼 저렇게 잘하고 싶다 그런 생각...(연구참여자5)

일상 속 자연스러운 체득. 연구참여자들에게 국악은 가족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의 일부였다. 연구참여자4는 엄마가 운영하는 무용연습실에서 살다시피하며 그곳 생활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연구참여자2는 엄마가 인솔하는 합숙훈련에 따라 들어가 학습자가 아닌 주변인의 신분으로 참여하여 귀동냥으로 민요를 익혔다. 연구참여자1은 바쁜 엄마를 따라 엄마의 일터인 대회장, 공연장

등을 쫓아다니며 그 세계에서 알아야 할 예의와 도리를 배울 수 있었다.

저희는 그냥 딱 민요를 하자 해서 한 게 아니라 듣는 귀로 배워서 따라 부르고, 엄마 합숙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제자들, 아줌마들, 학생들 데리고 한 일주일간 강원도나 어디 하나 잡아서 그냥 아침 먹고 연습, 점심 먹고 연습, 저녁 먹고 연습. 그러면 저도 그런데 가면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따라서 하고.(연구참여자2)

연구참여자들은 일종의 합숙훈련인 산(山)공부에 들어가 연습에 매진하는 한편 선생님을 비롯한 동료들과 숙식을 함께 하며 전통예술을 하는데 필요한 생활습관을 형성해 나갔다. 연구참여자1은 산공부를 통해 판소리 선생님, 국악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며 청소와 빨래, 식사 준비, 선생님 수발하기 등의 과정부터 뉘어 나갔다고 하였다.

청소하고 빨래 개고 그런 거 언니들이 한다는 생각은 전혀 못해요. 밥은 거기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하니까 상을 차려야 해요. 선생님 앞에서는 절대 안좋은 표정을 보이면 안되고 선생님 한복이라든지 챙기고. 정말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이 돼야 선생님께 이쁨을 받거든요.(연구참여자1)

가족추동력

현실적 고단함의 인식처. 무용을 하면서 크고 작은 부상을 자주 입는 연구참여자4는 부상에 대한 엄마의 반응에서 친구들과 확연한 차이를 느낀다고 하였다. 한국무용을 전공

한 연구참여자1의 엄마는 연구참여자1의 부상과 이로 인한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 준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1은 유명한 할머니의 손녀이자 엄마의 딸로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아픔을 이미 겪어낸 엄마의 존재 자체만으로 어려움을 헤쳐 나갈 힘을 얻었다고 하였다.

다른 애들은 몸 아프다고 그러면 엄마가 뭐했다고 아프냐 그러는데, 저는 엄마가 아프지, 아프지? 그리고 멍들면 안타까워하고...자기도 맨날 그랬다 그러면서 자기 발 보여주고.(연구참여자4)

길잡이가 되어주는 멘토. 연구참여자2는 민요 분야에서 학생 입시지도 경험이 많은 엄마의 도움으로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비교적 쉽게 선택할 수 있었으며, 현재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4의 경우, 한국무용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던 가정환경이 진로 선택의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했다고 하였다.

다른 애들은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잖아요. 이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한국무용 뭐냐고 물어보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애기때부터 한국무용이 있다는 것도 알고 어떻게 하는지도 알았으니까 진로 결정하기도 쉽고...(연구참여자4)

가족 자산

연구참여자5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으로 세상을 다 잃은 듯 슬펐지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아버지의 지인들 덕분에 위로를 얻었고, 그분들이야말로 아버지가 형제에게 남겨주신 가장 귀한 유산이라는 사

실을 깨닫게 되었다. 연구참여자2는 엄마의 딸이라는 이유로 국악계에서 내로라하는 선생님들을 친근하게 만나고 대할 수 있다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큰 혜택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냥 다 잃은 거 같았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선생님이 아버지랑 인연이 깊으셔서 많이 도와주겠다고... 형도 그분 수제자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아버지 지인분들이 다 저희를 도와주시니까 그게 아버지의 유산이랄까...(연구참여자5)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성장원동력

커다란 스승. 연구참여자3은 경제적 유익을 추구하기보다 예술가로서의 소신을 지켜야 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수도선부, 정심정음의 교훈을 예술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있었다. 연구참여자1은 할머니의 소리를 배우는 데만 10년이 넘게 걸린다고 하며, 그러한 경지에 오른 할머니에게서 소리를 배우는 데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저의 소리에 대한 신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들 소리 따라하지 말고 제 소리 지켜가면서. 아버지보다 더 선생님이신 분들한테 내려져 오는 말이 정심정음이라고, 바른 마음에서 바른 소리가 나온다는 말을 명심해서.(연구참여자3)

청출어람의 계기. 연구참여자1은 자신에 대하여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기대를 가지고 엄격하게 훈련하는 할머니가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으나 손녀이기 때문에 껴는 아픔이라 여기고, 할머니의 가르침을 자기성장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3은 자신의 판소리 실력에 대하여 혹평을 쏟아내는 아버지에게서 서운하기도 했으나 그 당시 발동한 ‘오기’가 실력향상을 위한 노력의 동기로 작용한 것 같다고 하였다.

공연 전에 고수들이랑 한 번씩 맞춰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랑 맞추다가 제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바로 너 무대 올라가서도 그렇게 소리하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너는 내 손녀가 아니다, 뭐만 했다하면 그냥 때려치우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연구참여자1)

예술적 역량 향상의 토대. 연구참여자2는 자신의 계속된 거부에도 불구하고 실력 있는 민요 선생님을 모셔와 레슨을 강행한 엄마의 노력이 지금의 자신을 존재하게 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1은 엄마나 할머니를 따라 참석하는 공연 뒤풀이 자리에서의 음악이 무대 위에서 진행되는 음악과는 또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예술적 시야를 넓혀 준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5는 아버지의 권유로 아프리카 타악을 배우기 위해 형과 함께 한 아프리카 유학생회에서 국악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아버지가 형보고 아프리카 타악을 배우라고 유학을 가라 해서 형 가니까 따라갔거든요. 그 전에는 국악의 재미를 못느꼈는데 타악 배우면서 국악의 재미를 느낀 것 같아요.(연구참여자5)

감옥살이 아닌 감옥살이

보이지 않는 구속.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가족으로 인해 받아야 하는 제약과 그로 인한 불편함을 토로하였다. 연구참여자2는 고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말썽을 많이 피는 같은 전공의 동생으로 인해 주위의 지인들로부터 편잔을 당하는 엄마를 보며 속상함을 감추지 못했다. 연구참여자1은 엄마와 할머니의 명성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강박관념을 ‘감옥살이 아닌 감옥살이’로 표현하였다.

‘니가 그렇게 하면 엄마 얼굴에 먹칠 하는거 아니냐’ 이런 게 심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해요. 엄마나 할머니 얼굴을 높여줄 수 있는 일은 맘껏 해도 되지만 깎아내리는 일은 조금이라도 하면 안되고, 금기되는 거고. 뭔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감옥살이 아닌 감옥살이...(연구참여자1)

꼬리표의 굴레. 외조모가 판소리 인간문화재인 연구참여자1은 대회나 공연 등의 대외적인 자리에서 제대로 된 기량을 발휘하면 당연한 듯 여겨지고, 실수라도 하면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현실에 속상함을 드러냈다. 연구참여자3은 아버지가 갖는 영향력의 범위를 ‘그늘’이라 표현하며, 그것이 자신과 아버지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삶의 태도를 갖고자 하였다.

‘아버지의 그늘 때문에 너는 분명 나중에 엄청나게 힘들 것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는 그게 뭐 말

인지 몰랐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거기는 다 예술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때 느꼈죠. 뭘 하든 조심해야지,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무조건 욕을 먹는다, 이게 아버지의 그늘이구나.(연구참여자3)

뛰어넘을 수 없는 벽

후광효과에 대한 반감. 연구참여자4는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한국무용을 진로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 한국무용을 전공한 엄마의 배경이 작용했을 것이라 보는 주변의 시선에 대해 불쾌감을 토로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1은 자신이 노력하여 일구어낸 성과를 할머니나 엄마의 후광 내지 비리로 치부해버리는 현실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제가 대회를 나갔어요. 중학교 대회 나가서 했는데 재 또 나왔어, 재 또 이번에도 쓸으려고 나왔어, 아파 돈을 찢렸겠지?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오로지 그냥 제 실력으로 나가서, 열심히 해서 나갔는데... 전공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를 안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너무 불편해요. 이래서 선생님의 자식들은 힘들어요. 제가 뭐만 했다하면 재 비리잖아, 뭐가 이랬자나 저랬자나... 서양음악도 그렇긴 하지만 국악은 특히 심하거든요.(연구참여자1)

의존적 존재감.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5는 형의 유명세를 이용한다는 편견은 감수할 수 있지만 형과의 친분 유지를 목적으로 자신에게 다가오

거나 호감을 표하는 사람들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대인관계에서조차 형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형에 대한 열등감이 느껴진다고 하였다.

형의 동생이라는 이름으로 호감을 갖는 거는 별로 기분이 अच्छ더라고요. 그냥 형 동생이니깐, 형이랑 관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나를 만난다는 생각...(연구참여자5)

가족의 길에서 나의 길로

자력으로 승부하기. 연구참여자3은 아버지가 터줏대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 새로운 지역에서 활동하며 자력으로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아버지의 간판에 의존하지 않고 소리로서 승부를 보고자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 자신을 통해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아버지가 지금은 K시립에 계시지만 저는 S시에서 창극단 단장이나 그런 걸 해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아예 S시쪽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제가 K시에서 활동해버리면 안전한 지대잖아요. 아버지는 워낙 K시에 계셨던 분이요 K시에서 완전한 터를 잡으셨기 때문에 K시 하더라도 아버지 아는 사람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니까 저는 그걸 좀 빼고 싶다는 거예요.(연구참여자3)

통합된 독자 노선.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이 일구어 놓은 삶의 터전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5는 국악의 대중화·세계화에 관심을 가

지고 있었으며, 창작판소리 제작, 판소리 가사의 영어 번역 작업 등을 자신에게 맡겨진 숙제로 인식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1은 할머니와 엄마가 갔던 길을 그대로 좇아 전통만을 고수하기보다는 전통의 미를 살린 퓨전음악으로 국악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싶다고 하였다.

제가 만약 퓨전음악을 안한다고 하면 정말 안정적이고 그 누구보다 뭐 교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길이 뽕뽕 뚫려있죠. 그냥 엄마나 할머니가 했던대로 하면...그런데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뭔가 바뀌서 국악의 길을 하나 뚫어놓고 싶어요.(연구참여자1)

일반적 구조 진술

연구참여자들은 전통예술에 대한 본인의 정체성이 부모로부터 대물림된 소질과 재능,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체화된 학습경험을 토대로 형성되었다고 인식하였다. 교수자인 할머니 또는 아버지의 제자들은 흉내낼 수 없는 기량을 발휘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피를 물려받는다’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타고난 재능만큼이나 어려서부터 전통예술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던 가정환경을 중요한 맥락으로 보고 있었다. 바쁜 부모님을 따라 부모님의 일터인 대회장, 공연장, 레슨실을 드나들고, 가족이 운영하는 수업에 정식학습자가 아닌 주변인의 신분으로 참여함으로써 전문가의 지식과 기능을 습득해 나갔던 경험, 가족을 통해 명망 있는 스승을 만나고, 가정 안팎에서 전문적인 도제식 교육을 받았던 경험들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예술적 역량 향상의 토대가 되었다. 또한 해당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현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족들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 본받아야 할 역할모델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예술가로서의 강직함과 빼어난 실력을 두루 갖추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가족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 나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교수자로서의 경험이 풍부한 가족을 통해 학습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한편 가족의 지도와 조언 안에서 중학교 진학을 비롯하여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 등의 진로를 선택해 나갔다. 또한 가족의 인맥에 편입됨으로써 해당 분야의 유명 인사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이것이 향후 자신의 예술 활동에 귀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무엇보다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의 가르침을 최고의 자산이라 여기고 있었다. 때로는 엄격한 가르침과 연단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러한 가르침이 실력 진보의 원동력이 되어 현재의 자신을 존재하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으로 인해 경험하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해당 분야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가족의 존재를 구속으로 느끼는가 하면 누군가의 ‘딸’, ‘아들’, ‘손녀’, ‘동생’이라는 꼬리표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였다. 독립된 인격체로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인정받고 싶지만 가족의 그늘에 가려 본연의 자기 색깔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하여 강한 반감을 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주변의 편견어린 시선과 자신

이 봉착한 현실적 한계에 좌절하기 보다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었으며, 가족의 발자취를 좇아 안정적인 삶에 안주하려 하기 보다는 전통의 가치와 본질을 살려 자신만의 독자적 예술세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전통예술을 가업으로 계승한 대학생들의 가족 내 경험과 가족이 갖는 의미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65개의 중심의미, 16개의 드러난 주제, 7개의 본질적 주제가 도출되었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제와 의미를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전통예술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가정 내에서 성장하며 전통예술가로서의 역량과 면모들을 갖추어 나갔다. 가족들을 따라 공연장, 대회장을 쫓아다니며 그곳에서 진행되는 작품을 감상하고, 가족이 운영하는 교육에 간접학습자로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거부감 없이 전통예술을 삶의 일부로 수용하게 되었다. 국악전공 전임교수로, 인간문화재로, 전통예술가로 현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모와 가족을 롤모델 삼아 예술적 가풍을 내면화해 나갔으며, 가족들에게서 발견되는 전통예술가로서의 전문성과 강직함, 예술과 무대에 대한 애정과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본받아 본인 또한 전통예술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대중들로부터 인정받고,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가족들이 흘린 땀과 눈물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에게 가족의 삶은 예술가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초석이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인이 어떻게 성장하고 교육받았으며, 어떠한 과업을 의미 있게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발전·성취시켜 나갔는지에 따라 개인의 동기화가 달라진다는 주장(김춘일, 김성혜, 2008)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동시에 어린 시절의 가정 배경과 그로부터 제공된 경험들이 개인의 가치관 및 성향체계 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Bourdieu의 주장과도 일치한다(Bourdieu, 1984). Bourdieu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교육활동들 가운데 어린 시절에 받는 최초의 교육에 매우 큰 가치를 부여하였다. 특히 가정환경 및 가정교육을 통해 체화된 부모의 예술적 취향과 지적 능력은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McGoldrick, Pearce, Giordano(1982) 또한 한 개인이 인생에서 최초로 접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체계이자 문화적 변인으로써의 가족은 전 생애에 걸쳐 개인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며, 인간행동의 중대한 결정인자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인간의 발달에 있어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 및 교육, 부모를 비롯한 가족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에게 가족은 전통예술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내·외적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는 멘토이자 예술적 역량 향상의 토대를 제공해주는 스승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전통예술이 대중들로부터 외면 받는 현실에 대한 고민, 전공과 관련된 취업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 가족의 영향력에 대한 주변의 견제와 편견 등 대를 이어 전통예술을

전공하는 과정에서 겪는 아픔과 고민을 이해해주고, 포기하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족의 지지 속에서 많은 힘을 얻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대인관계로부터 얻는 긍정적 지지가 개인의 정서적 위기와 환경적 스트레스에 대하여 완충작용을 해주고,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도울 뿐 아니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Heller, Swindle, & Dusenbury, 1986)와 일치한다.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족 구성원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지지체로서 가족의 중요성을 설명한 연구결과(Hamburg & Adams, 1967), 인간은 가족의 지지를 통해 얻게 되는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발달한다는 주장(Furman & Buhrmest, 1985) 또한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 가족의 지지가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더불어 가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시기로, 가족의 지지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주장(이윤주, 2009)은 중·고등학생은 물론 후기 청소년기에 있는 대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적응을 위해 가족의 지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연구참여자의 가족들은 연구참여자들의 중·고등학교와 대학 진학 및 진로 선택, 전공변경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조언과 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진로와 관련하여 가족들이 제시하는 사항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가족들과 연구참여자들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족이 연구참여자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믿음이 바탕을 이루

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의 경우, 가족의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발견되는 긍정적 자원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진로행동을 할 수 있고, 진로태도가 성숙해지며, 진로탐색 및 결정 능력 또한 향상된다(이재희, 이지민, 2012)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학생의 진로에 가족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에서도 원가족, 특히 부모가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Fouad, 2007).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청소년의 진로태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진로상담 및 지도 장면에서 가족의 영향, 특히 부모의 영향 및 의사소통 등에 대한 구체적 확인 및 탐색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입장은 최근 진로발달이론의 동향과 상통하는데, 최근에는 진로의사결정 시, 선택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맥락적 변인이 개인 내적 요인 혹은 진로의사결정 변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전체 진로의사결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하여 밝히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선헤연, 2008; Sauer mann, 2005).

넷째, 가족 배경으로 인한 타인의 비판어린 시선과 기대치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심적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예술가로서 자신의 삶이 가족의 존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인간문화재, 대학교수, 시립극단장, 유명 국악인을 가족으로 둔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항상 ‘누군가’의 딸·아들·손녀·동생이라는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 다녔고, 이로 인해 공식적인 대회나 공연 등에서 자신의 실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전공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정, 능력 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시기보다는 비리, 가족의 후광,

강요의 산물로 치부해버리는 시선을 힘겨워 하였다. 또한 가족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매사 조심스럽게 처신해야 하는 현실은 연구참여자들이 깊어져야 할 삶의 무게로 다가왔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가족의 존재를 ‘그늘’이자 ‘굴레’로 표현하였다. 이에 연구참여자들은 해당분야에서 성공한 가족의 덕을 보거나 가족의 간판에 의존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자력으로 인정받고, 자신이 구축한 예술 세계 안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가족이 닦아놓은 궤도를 그대로 쫓아가면 해당 분야에서 수월하게 기반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누군가의 아들 또는 딸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과 당당하게 맞서고자 하였다. 또한 조부모나 부모 세대의 예술세계를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윗세대에서 전승되어온 전통예술을 밀천삼아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창조적으로 문화 재생산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전통예술을 전승해 나가고 있는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개인은 아동기부터 부모, 형제를 비롯한 중요한 타인의 가치가 포함된 메시지에 많은 영향을 받지만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에게 보다 중요한 특정 가치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형성해 나가게 된다(김완석 외, 2013). 즉, 개인의 가치관 형성은 부모의 교육 또는 사회화 과정에서 취사선택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연구참여자들의 예술세계가 가족의 영향에 의해서만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본인의 가치판단과 의지가 반영된 산물이라 보는 본 연구의 입장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가족과 끊임없이 비교되는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본인

만의 길을 개척하고자 애쓰고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기의 열등감이 성장을 위한 긍정적 동기로 작용할 경우, 개인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송현중, 조성은, 2003)와 일치한다.

본 연구는 서구의 합리주의와 과학주의에 경도되어 우리 전통을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몸소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 전통예술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도제제도와 다양한 사회적 특권 및 대우를 통해 전통 예술이나 기술, 장인정신 등의 대물림이 제도적으로 정착된 일본과 달리 타국의 침략과 급진적인 근대화로 인한 전통의 단절로 가업계승이 견고하게 정착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아마자키 노리코, 2011), 전통예술의 가업계승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논의되어야 할 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전통예술을 가업으로 계승한 대학생들의 가족 내 학습 경험, 가족관계 경험에 대해 다룸으로써 ‘가업계승’이라는 전승방식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가업을 계승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전통적·집단주의적 문화 안에서 자신보다는 가족의 지향성을 존중하고, 전통예술의 세계 안에서 추구하는 규범과 의무, 기대 등에 맞춰 자기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전통예술가로서의 명예와 능력을 갖춘 가족들을 ‘배우고, 따라가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집단주의 문화 내에서 문화에 따른 심리적 과정과 사회적 행동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틀로 고안된 이누미야(2004)의 ‘주체성-대상성 자기이론’ 중 대상성 자기인식

(objective self) 유형에 해당한다(류승아, 김경미, 한민, 2014). 이와 같은 사람들은 상대의 가치와 능력을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자기억제적 행동특성을 보이며, 남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자기내부를 향한 통제성을 주로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자신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누미야, 김윤주, 2006). 본 연구를 통해 대상성 자기인식 경향이 높은 연구참여자들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조력하기 위한 상담 실재의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통예술을 가업으로 계승한 대학생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가족 경험은 물론 친구, 동료, 교수 등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경험을 다각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가족 내 역동과 경험 탐색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가업을 계승하여 전통예술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험을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예술은 음악, 무용, 미술, 연희 등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용, 판소리, 민요를 전공하는 대학생에 한정하여 연구참여자 선정이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전통예술의 의미와 본질을 최대한 반영한 연구참여자 선정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 현, 이은경 (2011). 고등학생의 가족체계와 진로 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자기제시 동기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4(1), 103-116.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중요무형문화재 표준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2008-호.
- 국립국어원 (2016).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에
서 2016. 08. 01. 자료 얻음
- 권용혁 (2011). 개인과 가족. *사회와 철학*, (21), 241-268.
- 김수리, 이재창 (2007).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93-407.
- 김영천 (2006).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문음사.
- 김완석, 박종원 (2013). 대학생의 가족영향력과 진로포부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진로교육연구*, 26(1), 203-229.
- 김춘일, 김성혜 (2008). 예술가들의 어린시절. *파주: 교육과학사*.
- 류승아, 김경미, 한민 (2014). 문화적 자기관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행복 및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3), 177-203.
- 박현미, 장석진 (2013). 가족지지와 청소년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1(1), 1-21.
- 박현승, 허식 (2013). 전통예술 참여동기 요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문화경제연구*, 16(1), 73-102.
- 선혜연 (2008). 청소년 진로의사결정 상황에 따른 부모의 관여방식 차이. *진로교육연구*, 21(3), 49-67.
- 손태도 (2012). 전통 연희의 공연 미학 탐색. *고전문학과 교육*, 23, 331-366.
- 송현중, 조성은 (2003). 청소년들의 열등감 보상과 사회적 관심 증대를 위한 개인심리학적 집단상담의 효과. *상담학연구*, 4(4), 755-771.
- 야마자키 노리코 (2011). 일본의 '가업'과 지역사회 공헌: 사이타마(埼玉)현 가와고에(川越)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윤정, 조성기, 우주희 (2009).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연구보고RRC, 11-1.
- 이경엽 (2014).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재인식과 계승 방향. *남도민속연구*, 29, 249-284.
- 이누미야 요시유키, 김윤주 (2006). 긍정적 환상의 한일 비교: 주체성 자기와 대상성 자기에 의한 설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4), 19-34.
- 이득연, 홍경자 (2004). 가족의 심리 사회적 변인과 진로탐색행동과의 관계: 합리적 진로의사결정과 진로결정효능감을 매개로. *청소년상담연구*, 12(1), 109-120.
- 이사랑 (2009). 가계 전승을 통한 국악인 2세의 정체성 형성 과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윤주 (2009). 가족지지,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친밀감이 중고등학생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1, 57-71.
- 이재희, 이지민 (2012).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4), 77-87.

- 전지영 (2015). 국악교육의 본질과 한계에 관한 성찰. *교육문화연구*, 21(3), 103-128.
- 전지영 (2015). 전통예술정책과 전통예술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설정. *국악교육*, 39, 161-182.
- 정은정 (2015).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전통예술교육 프로그램. *국악교육연구*, 9(2), 167-195.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0). 21세기 한국 전통음악 비교 교수·학습 자료 개발 연구.
- 한민, 류승아, 김경미 (2012). 사회비교와 행복의 관계에서 문화적 자기관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4), 577-597.
- Bourdieu, P. (1984). *Distinction*.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Bratcher, W. E. (1982). The influence of the family on career selection: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Personnel & Guidance Journal*, 61(2).
- Carr, A. (2012). Family therapy: Concepts, process and practice. John Wiley & Sons.
- Fouad, N. A. (2007). Work and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Annu. Rev. Psychol.*, 58, 543-564.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16-1024.
- Giorgi, A. (2009).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in psychology: A modified Husserlian approach*. Duquesne University Press.
- Hamburg, D. A., & Adams, J. E. (1967). A perspective on coping behavior: Seeking and utilizing information in major transition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7(3), 277-284.
- Heller, K., Swindle, R. W., & Dusenbury, L. (1986). Component social support processes: Comments and integr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4), 466.
- Hurberman, M., & Miles,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
- Lerner, R. M., & Schulenberg, J. E. (1986). *Career development: A life-span developmental approach*. Lawrence Erlbaum.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Vol. 75). Sage.
- Lopez, F. G., & Andrews, S. (1987). Career indecision: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a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cGoldrick, M., Pearce, J. K., & Giordano, J. (1982). *Ethnicity and family therapy*(Eds.). New York: Guilford.
- Richie, B. S., Fassinger, R. E., Linn, S. G., Johnson, J., Prosser, J., & Robinson, S. (1997). Persistence, connection, and passion: A qualitative study of the career development of highly achieving African American - Black and White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2), 133.
- Rosenberg, M., Schooler, C., & Schoenbach, C. (1989). Self-esteem and adolescent problems: Model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004-1018.
- Sanna, L. J. (1992). Self-efficacy theory: Implications for social facilitation and social loaf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5), 774.

- Sauermann, H. (2005). Vocational choice: A decision making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6(2), 273-303.
- Tang, M., Fouad, N. A., & Smith, P. L. (1999). Asian Americans' career choices: A path model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their career choi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1), 142-1.

논문 투고일 : 2016. 09. 08

1 차 심사일 : 2016. 09. 16

게재 확정일 : 2016. 11. 05

The Study on the Meaning of the Family Experienced by Undergraduates Taking over Traditional Art as Family Occupation: Giorgi's Phenomenological Approach

Su Eun Kang

Dong Hun Lee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s in family and the meaning and nature of the family which undergraduate students have when taking over traditional art as family occupation. Five students were selected who majored in traditional art in order to succeed to their family occupation and in-depth interviews with them were conducted according to semi-structured interview guideline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Giorgi's phenomenological study procedures and resulted in 65 main meanings, 16 emerging themes and 7 essential themes. These essential themes consisted of 'innate talents in their blood', 'internalization of artistic family traditions', 'impetus given by the family', 'the driving force as a professional artist', 'a life like being imprisoned', 'the wall impossible to go over' and 'family occupations turning into mine .'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discussion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presented.

Key words : traditional art, family occupation, family, Giorgi's phenomenological study